

2017 사회복지직 9급 정답&해설

국어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답 ④

해설

‘땀을 들이다’는 ‘몸을 시원하게 하여 땀을 없애다 / 잠시 휴식하다’의 의미이다.

2. 정답 ①

해설

관형절은 절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문장을 말한다. 그중 관형절 내의 성분이 생략되어 있는 관계 관형절과 관형절 내에 생략된 성분이 없는 동격 관형절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①은 ‘비가 오다’라는 문장이 뒤에 이어지는 명사 ‘소리’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절이다. 이때 ‘비가(주어) 오다(서술어)=소리’의 구성을 보이고, 생략된 부분이 없으므로 동격 관형절로 볼 수 있다. 나머지 ②, ③, ④는 모두 관형절 내의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인 관계 관형절이다.

오답 풀이

- ② 새로 (양복을) 맞추다.
- ③ 길에서 (지갑을) 줍다.
- ④ 지하철에서 (사람을) 만나다.

3. 정답 ③

해설

〈보기〉는 자음을 소리 내는 자리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 양순음(입술소리): ㅂ, ㅃ, ㅍ, ㅁ
- 치조음(혀끝소리): ㄷ, ㄸ, ㅌ, ㄴ, ㄴ, ㄹ, ㄷ
- 경구개음(센입천장소리): ㅈ, ㅉ, ㅊ, ㅊ
- 연구개음(여린입천장소리): ㄱ, ㄲ, ㅋ, ㅇ
- 후음(목청소리): ㅎ

③ ‘부고’의 ‘ㅂ’은 양순음이 맞고, ‘ㄱ’은 치조음이 아니라 연구개음이므로 모두 옳게 표기되었다.

오답 풀이

- ① 가로: [+연구개음], [-후음] - ‘ㄱ’은 경구개음이 아니라 연구개음이고, ‘ㄷ’은 치조음이다.
- ② 미비: [-경구개음], [+양순음] - ‘ㅁ’은 양순음이고, ‘ㅂ’도 후음이 아니라 양순음이다.
- ④ 효과: [+후음], [+연구개음] - ‘ㅎ’은 후음이고, ‘ㄱ’은 연구개음이다.

4. 정답 ④

해설

〈표준 발음법〉 제12항 중 받침 ‘ㅎ, ㄴ, ㄹ’의 ‘ㅎ’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될 때에는 그 ‘ㅎ’은 발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④ ‘않은’의 경우 받침 ‘ㄴ’의 ‘ㅎ’은 발음하지 않고 ‘ㄴ’은 연음하여 [아는]으로 발음해야 한다.

5. 정답 ②

해설

‘들’은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바르게 표기되었다.

오답 풀이

- ① 키는√장대만큼: ‘만큼’은 체언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였으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③ 세√시간√만에: ‘만’은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④ 대답이√맞는지: ‘-는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로 쓰였으므로 붙여 써야 한다.

6. 정답 ①

해설

‘변명(辨明: 분별할 변, 밝을 명)’은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 /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힘’의 의미이다.

오답 풀이

- ② 인식(認識: 알 인, 알 식):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 ③ 대처(對處: 대할 대, 곳 처):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
- ④ 선양(宣揚: 베풀 선, 펼칠 양): 명성이나 권위 따위를 널리 펼치게 함. ‘선양(禪讓: 선 선, 사양할 양)’은 ‘임금의 자리를 물려줌’의 의미이다.

7. 정답 ②

해설

언어의 기호적 특성에 관한 문제이다. ‘.’가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사멸하거나. ‘물[水]과 ‘어리다’의 형태나 의미가 현대 국어에 와서 변화하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다. 언어의 역사성은 언어는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신생·성장·사멸하는 변화를 겪을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오답 풀이

- ① 언어의 사회성: 음성과 의미가 일단 사회적 약속으로 수용되면 이를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 ③ 언어의 자의성: 언어 기호의 형식인 음성과 내용인 의미가 유사성과 필연성이 없는 임의적 관계만 존재한다.
- ④ 언어의 분절성: 언어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8. 정답 ②

해설

‘무람없다’는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이다. ‘생김새가 불품없고 세련되지 못하다’라는 의미에 가까운 단어로 ‘투박하다’를 들 수 있다. ‘투박하다’는 ‘생김새가 불품없이 둔하고 튼튼하기만 하다 / 말이나 행동 따위가 거칠고 세련되지 못하다’의 의미이다.

오답 풀이

- ③ 국으로: 제 생긴 그대로. 또는 자기 주제에 맞게

9. 정답 ①

해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보다’, ‘먹다’, ‘드리다’, ‘말다’는 모두 본용언과 보조 용언에 모두 쓰이는 단어이다. 따라서 문장 안에서의 의미와 기능을 고려하여 용언의 종류를 구별해야 한다. ①의 ‘보다’는 모두 보조 용언으로 쓰였는데, ‘읽어 보다’의 ‘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로, ‘더운가 보다’의 ‘보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하거나 어렵פות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로 쓰였다.

오답 풀이

- ② • 깨 먹었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강조하는 보조 동사
 - 끓여 먹자: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라는 ‘먹다’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동사
- ③ • 가져다 드리랴: ‘주다’의 높임말로 쓰인 동사
 - 거들어 드린다: 앞 동사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
- ④ • 이것 말고: ‘아니고’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
 - 떨어지고 말았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내 실현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

10. 정답 ①

해설

문장 부호의 쓰임을 통해 문장의 구조나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쉼표는 이 문장에서는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즉 쉼표가 없이 ‘낮익은 철수의 동생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라는 문장이라면 관형어 ‘낮익은’이 수식하는 것이 철수인지 철수의 동생인지 알 수 없는 중의적 문장이 되지만, ‘낮익은’과 ‘철수’ 사이에 쉼표를 넣음으로써 관형어 ‘낮익은’이 수식하는 것이 철수의 동생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마침표’는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다만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의문문, 즉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인 문장의 끝에는 물음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이지 않았거나 전형적인 문장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의문을 나타낸다면 그 끝에 물음표를 쓴다.
- ④ 인용한 말이 마음속으로 한 말임을 나타낼 때는 작은따옴표를 쓴다.

11. 정답 ③

해설

이 문장에서 ‘씩다’는 ‘쓰다’의 피동사인 ‘쓰이다’의 준말이다. ‘씩다’는 ‘씩어 - 씹니’로 활용하므로 옳은 표기이다. 참고로 ‘쓰이다’는 ‘쓰이어(쓰여) - 쓰이니’로 활용하므로 ‘씩어/쓰여’ 모두 옳은 표기이다.

오답 풀이

- ① 가까왔다(×) → 가까웠다(○): ‘가깝다’는 ‘가까워 - 가까우니’로 활용한다. ‘ㄴ’ 불규칙 용언이 활용할 때 ‘오+아 → 와’ 형으로 변하는 단어는 ‘곱다, 돕다’밖에 없다.
- ② 잘되서(×) → 잘돼서(○): ‘잘되다’는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 / 사람이 훌륭하게 되다 /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다 / 결과가 좋지 아니하게 되다’ 등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어간 ‘잘되-’에 어미 ‘-어서’가 이어진 ‘잘되어서’를 줄여 ‘잘돼서’로 표기한다
- ④ 생각컨대(×) → 생각건대(○): ‘생각하건대’의 어간 ‘생각하-’의 끝 음절 ‘하’가 앞에 안울림소리가 있어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12.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은 판소리 〈수궁가〉 중 별주부가 토끼를 수궁으로 데려가기 위해 유인하는 대목이다. 토끼몰이에 황급히 도망가는 토끼 모습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인 ‘魂飛魄散(넋 혼, 날 비, 넋 백, 흩을 산)’이다.

오답 풀이

- ① 小隙沈舟(작을 소, 틈 극, 잠길 침, 배 주): 조그만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 배가 가라앉는다는 뜻으로, 작은 일을 게을리하면 큰 재앙이 닥치게 됨을 이르는 말
- ③ 亡羊補牢(망할 망, 양 양, 기울 보, 우리 뉘):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 원래는 양을 잃은 뒤에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실패해도 빨리 뉘우치고 수습하면 늦지 않는다는 말로 쓰였으나 현재는 주로 이와 같이 쓰이고 있다.
- ④ 干名犯義(방패 간, 이름 명, 범할 범, 옳을 의): 명분을 거스르고 의리를 어기는 행위

13. 정답 ①

해설

〈석보상절〉은 조선 세종 28년(1446)에 수양 대군이 세종의 명에 따라 소헌 왕후 심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쓴 책으로 세종 29년에서 31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세 국어의 특징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이다. 중세 국어에서 이중 모음이었던 ‘ㄱㅅ, ㄴㅅ, ㄹㅅ, ㅅㅅ’는 근대 국어로 오면서 단모음으로 발음되기 시작하였다.

오답 풀이

- ② ‘합용 병서’는 ‘ㄱㅅ, ㄴㅅ’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을 말하고, ‘각자 병서’는 ㄱㅅ, ㄴㅅ 등 서로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을 말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순수 국어의 초성에 합용 병서를 사용한 자음군이 사용되었다. [예] 뵈, 뵈
- ③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일반적으로 ‘이’가 쓰였으며 ‘가’는 근대 국어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 ④ 모음 조화는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뒤의 모음이 앞 모음의 영향으로 그와 가깝게 나거나 같은 소리로 되는 언어 현상을 말하며 중세 국어에서 잘 지켜졌다.

14. 정답 ④

해설

작가 미상의 고려 가요 〈가시리〉이다.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슬픔과 애이불비(哀而不悲)의 마음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김소월의 〈진달래꽃〉’ 역시 떠나는 임을 곁으로는 축복함으로써 이별의 슬픔을 절제하여 표현했다는 점에서, 제시된 시와 정서가 가장 유사하다.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은 〈공무도하가〉-〈가시리〉-〈진달래꽃〉으로 이어졌다.

- 애이불비(哀而不悲): 슬프지만 곁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아니함.

오답 풀이

- ① 한용운의 〈님의 침묵〉 역시 임과 이별하는 슬픔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임과 재회하리라는 확신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제시된 시와 정서가 다르다.
- ② 김상용의 〈남으로 창을 내겠소〉는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과 낙천적 인생관을 드러낸 시이다.
- ③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 도달한 원숙미를 주제로 한 시이다.

15. 정답 ③

해설

허균의 <홍길동전>의 일부분이다. 제시문은 활빈당의 우두머리로 빈민들을 위해 활약하는 길동을, 임금의 체포 명령을 받고 길동의 형(감사)이 만나 설득하자 길동이 이에 답하는 장면이다. ㉠에서 ‘적당(賊黨)’이란 ‘도둑의 무리’로, ‘활빈당’을 의미한다. 길동은 활빈당을 이끌며 탐관오리의 재산을 빼앗아 빈민들에게 나누어준 죄로 쫓기고 있는 처지이므로, ㉠으로 길동의 죄명을 유추할 수 있다는 ③은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 ① ㉠은 거짓 웃음이 아니라, 길동이 형의 설득에 마음 아파 울면서 말한다는 의미이다.
 - 체읍(涕泣): 눈물을 흘리며 슬피 읊.
- ② ㉠은, 길동이 서자(庶子) 출신임을 한스럽게 생각한 것이, 활빈당을 조직하여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부형의 훈계를 듣지 않은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④ ㉠의 주체는 길동이 아니라 감사(길동의 형)이며, 결박당한 것은 감사가 아니라 길동이다. 즉 ㉠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 잡힌 동생 때문에 슬퍼하는 형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 참연하다(慘然--): 슬프고 참혹하다.

16. 정답 ②

해설

글에 대한 올바른 독자의 반응을 찾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다양성을 증대시켰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오히려 지역 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을 말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다양성 보존과 거리가 있다는 ②가 가장 옳은 반응이다.

오답 풀이

- ③ 글쓴이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역기능을 비판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③은 글쓴이의 의도를 벗어나는 반응이다.
- ④ 국제 운송 시스템 때문에 오히려 지역 문화의 다양성이 말살당했다는 것이 글쓴이의 견해이므로, ④는 글쓴이의 의도와 상반되는 반응이다.

17. 정답 ③

해설

밑줄 친 부분에는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한 표현이 나타난다. ③은 “서느런 옷자락에 / 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에 촉각적 심상이 나타날 뿐, 공감각적 심상은 사용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김선우의 <감자 먹는 사람들>로, 후각을 시각화한 표현이 나타난다.
- ② 김선우의 <단단한 고요>로, 시각을 청각화한 표현이 나타난다.
- ④ 전봉건의 <피아노>로, 청각을 시각화한 표현이 나타난다.

18. 정답 ④

해설

문장의 문맥적 의미에 맞는 단어를 찾는 문제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것은 장점과 함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우리의 주체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밑줄 친 부분은 ㉠ ‘선택’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19. 정답 ③

해설

제시문과 일치하는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억양이 화자의 태도와 의미를 드러낸다고 설명하면서 “상승 억양은 비판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③이 가장 옳은 내용이다.

오답 풀이

- ① 억양을 잘 이해하면 오히려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 ② 억양은 문장의 어순이 아니라,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 ④ 억양은 소리의 길고 짧음(장단)이 아니라, 소리의 ‘높낮이’와 관련된 것이다.

20. 정답 ④

해설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시조이다. 나쁜 무리를 ‘까마귀’에, 군자 혹은 아들 정몽주를 ‘백로’에 비유하여 나쁜 무리와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를 전한 시조이므로, 비유법을 사용했다는 ④가 가장 옳은 설명이다.

오답 풀이

- ② 흰색과 검은 색의 대비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까마귀가 아니라 ‘백로’를 옹호하는 것이다.
- ③ ‘새우다’는 ‘샘을 내다’란 의미이며, ‘-르세라’는 ‘혹시 그러할까 염려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새울세라’는 ‘샘을 낼까봐 걱정되는구나’로 해석할 수 있다.